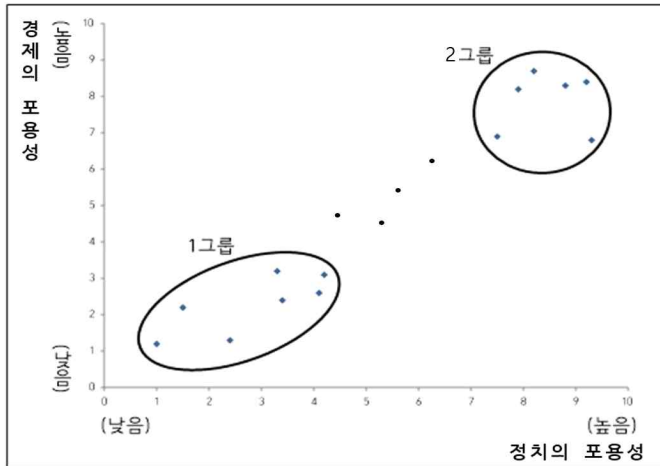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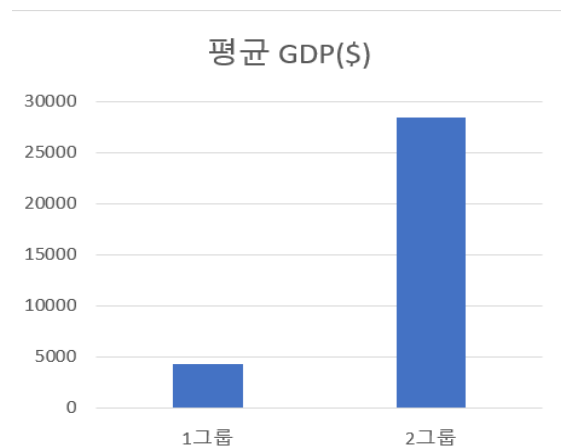
신촌사회과학연구회 8기 면접문제

(가)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가? 경제학자들은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여 왔다. Apple Kite University 경제학부의 A교수는 이른바 '지리적 요인 가설 (Geographic Factor Hypothesis)'이라 불리는 이론을 선도하는 연구자이다. A교수는 각국의 지리적 차이가 경제적 격차의 원인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농경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진 온대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농업으로부터 시작해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회를 이루는 데 성공한 반면, 열대지역에 자리잡은 국가들은 더운 기후와 산성토양으로 인해 농경사회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온대지역에 해당하는 유럽에 대부분의 선진국이 분포하고 열대지역인 동남아에 경제적으로 뒤쳐진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

(나) Sinchon University 경제학과를 졸업한 B박사는 젊은 소장학자로서, 학계 주류이론인 지리적 요인 가설을 반증하고자 한다. 그 근거로 그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아래의 데이터는 가상의 수치이다.)



(데이터 1)



(데이터 2)

* (데이터 1)과 (데이터 2)는 가상의 2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들은 가설검증을 위한 표본 집단으로서 타당하다.

그는 신촌에서 열린 2019년 동계 경제학술대회에서 위의 데이터를 근거로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i) 새로운 가설을 발표하였다. 이때 (데이터 1)에서 경제의 포용성은 사유재산권, 거래와 상업의 자유, 기회의 평등이, 정치적 포용성은 정치적 평등, 권력의 분립과 견제, 법치주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후 발표자로 나선 A교수는 (ii) B박사의 데이터의 허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였다.

(다) 한편 이론경제학자 C의 발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유럽 패권의 결정적 비결은 우월한 군사기술에 있었다. 화약을 발명한 것은 중국이었지만, 화약기술을 받아들여 더욱 효과적인 화기로 가다듬은 것은 유럽인들이었고, 18세기에 이르면 이미 중국의 화약기술은 유럽보다 한참 뒤떨어진 수준이었다. 아편전쟁은 중국, 나아가 동방이 더 이상 서구 열강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이 빈발하면 빈발할수록 국가가 군사기술에 투자할 유인이 커진다. 또한 전쟁이 잦으면 새로운 군사기술을 실전에 투입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라는 패권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일국 체제가 오랜 세월 유지되었다.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은 드물었고, 이따금 유목민의 침입이나 내전으로 인한 레짐체인지가 있을 뿐이었다. 반면 서로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소국들로 쪼개진 유럽에서 전쟁은 훨씬 빈번했다. 이와 같은 항구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는 유럽 국가들에게는 군사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조밀한 내륙보다는 해상 팽창을 추구하도록 자극했다. 군사기술의 발달과 해상 팽창은 곧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으로 이어졌다...”

※ 문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핵심 위주로 답변해주세요.)

문제 1. (나) 지문의 '새로운 가설 (i)'과 B박사의 데이터의 '허점 (ii)'이 각각 무엇인지 추론해 보시오.

문제 2. (다)의 입장에서 (가)의 '지리적 요인 가설'을 비판하시오.

문제 3. '당신의 이론은 근접원인은 설명하지만 궁극원인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군요.'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을 때, 발표자 A, B, C의 이론들은 각각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문제 3. 참고)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을 근접원인, 인과의 연쇄에서 가장 근본적인 첫째 원인을 궁극원인이라 한다.